

GANGJIN 

Web Contents



목차

목차	2
대표작	3

님이여 강물이 못시도 퍼렸습니다

한숨에도 불려갈듯 보-하니 떠있는
은빛 아지랑이 깨어 흐른 머언 산들레
구비 구비 놓인 길은 하얗게 빛납니다
님이여 강물이 못시도 퍼렸습니다.

헤어진 섬돌에 떨어진 햇살도 사라지고
밤빛이 어슴어슴 들우에 깔리어갑니다.
훗훗달른 이 얼굴 식혀줄 바람도 없는 것을
님이여 가이 없는 나의마음을 아릅니까

GANGJIN

Web Contents

